

職場男性의 衣服行動과 知覺向性 및 職業滿足度와의 相關研究

—精神勞動者(White-collar) 中心으로—

朴 銀 珠 · 姜 蕙 遠 · 趙 吉 洙

延世大學校 家政大學 衣生活學科

Relationships between Clothing Behavior and Perceptual Orientation, and between Clothing Behavior and Job Satisfaction of White-collar Men

Eun Joo Park · He Won Kahng · Gilsoo Cho

Dept. of Clothing & Textiles,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ersity

(1985. 8. 7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our aspects of clothing behavior and perceptual orientation, and between those and job satisfaction of white-collar men. Those aspects of clothing behavior included: clothing conformity, clothing satisfaction, status symbol and occupation symbol.

Perceptual orientation was measured with Choi's Perceptual Orientation Scale and job satisfaction, with some items of Miller's The Attitude Toward Any Occupation Scale. Clothing conformity and clothing satisfaction were measured with Kahng's, Jung's, Koh's and Lee's questionnaire. Status symbol was measured with Koh's and Lee's questionnaire, and occupation symbol items were prepared for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in this study were administered to 323 white-collar workers in Seoul. The statistical methods utilized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one-way ANOVA 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were:

1. Perceptual orient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clothing satisfaction, and negatively correlated to status symbol.
2. Job satisfac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clothing satisfaction and clothing conformity.
3. Clothing conformity, clothing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occupation.

I. 緒 論

우리는 의복을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아개념과 태도등의 내면적 가치도 反映하고 외모의 한 요소로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회적 지위, 직업, 역할, 성격특성을 無言으로 전달하여 준다¹⁾. 그러므로 의복은 인간의 사회생활에 중요한 意味를 가지고 있으며 두가지 측면의 역할은 의복행동에 관한 다양한 연구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Hurlock²⁾에 의하면 남자들의 사회에서 의복은 사회적 지위와 직업內 成就의 중요한 指針이며, 그의 목표달성에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하였고, Form과 Stone³⁾은 정신노동자(white-collar worker)는 육체노동자(blue-collar worker)보다 의복을 더 중요시하며 사회구성的一員으로서 他人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의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남자들에 있어서 의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여 주고 있으므로, 現代社會에서 직업역할을 수행하는 職場男性을 대상으로 個人特性 및 職業役割遂行과 衣服態度를 관련지어 의복의 영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理解를 바탕으로 보다 社會生活을 원활히 할 수 있는 衣服生活에 대한 의식을 높이며 그 合理化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한 意味를 지닌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에 종사하는 성인남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1) 직장남성의 知覺向性과 衣服行動(同調性, 滿足度, 身分象徵性, 職業象徵性)간의 相關성을 糾明하고, 2) 직장남성의 職業滿足도와 衣服行動(同調性, 滿足度, 身分象徵性, 職業象徵性)간의 相關성을 糾明하며, 3) 직장남성의 衣服行動(同調性, 滿足度, 身分象徵性, 職業象徵性)에 있어서 職業分類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고, 4) 직장남성의 衣服行動(同調性, 滿足度, 身分象徵性, 職業象徵性)과 背景變因과의 相關성을 調查하는데 있다.

II. 假 說

職場男性의 衣服行動과 知覺向性 및 職業滿足도와의 相關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文獻研究에서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零假說을 설정하였다.

1. 職場男性의 知覺向性과 衣服行動 네측면(의복동조성, 의복만족도, 신분상징성, 직업상징성) 사이에는

有意한 關係가 없을 것이다.

2. 職場男性의 職業滿足도와 衣服行動 네측면(의복동조성, 의복만족도, 신분상징성, 직업상징성) 사이에는 有意한 關係가 없을 것이다.

〈부가적 관심〉

1) 職業分類(전문직, 관리직, 사무직)에 따른 衣服行動 차이를 調查한다.

2) 背景變因과 衣服行動, 知覺向性 및 職業滿足도와의 相關성을 調查한다.

III. 用語의 定義

1. 知覺向性(Perceptual Orientation): 인간의 자신, 타아 및 사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느끼는가, 부정적으로 느끼는가 하는 경향을 말한다.

2. 職業滿足度(Job Satisfaction): 직장에서의 역할 분담, 분위기등 직업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감의 정도를 의미한다.

3. 衣服의 同調性(Clothing Conformity): 준거집단의 의복기준에 맞추어 옷을 입으려는 것을 의미한다.

4. 衣服의 滿足度(Clothing Satisfaction): 소유하고 있는 의복의 가지수, 색상, 가격 및 어울리게 입는 방법등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한다.

5. 衣服의 身分象徵性(Clothing Status Symbol): 의복에 의하여 자신의 경제적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로서 의복의 가격 및 품질을 신분평가의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6. 衣服의 職業象徵性(Clothing Occupation Symbol): 의복에 의하여 직업역할, 직업수준을 나타내려고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IV. 文獻的 背景

본 연구와 관련되는 문헌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精神勞動者: 정신노동자의 意識構造에 대하여 김영모⁴⁾는 생활안정과 대인접촉으로 인하여 외모에 신경을 쓰고 몸치장과 용모에 많은 시간과 금전을 낭비한다. 이들은 유행의 첨단에 서며 他人과의 동조적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부르조아 의식을 가지며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다고 하였다.

고영복⁵⁾에 의하면, 정신노동자는 노동자와 거리가 접근되면 될수록 자기의 위신과 地位에 대한 조그만

차이러도 나타내려는 상징적인 것에 집착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知覺向性 : 지각향성이란 인간이 자신, 타인 및 사물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내용의 경향을 말하는 것으로 向性이란 본성 및 본거지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말하며 인간의 행동가운데 자신, 타인 및 사물을 주로 긍정적으로 지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지각하느냐 하는 경향을 규명하는 것이다⁹⁾.

이 知覺向性 가운데서 “自我에 대한 知覺” 즉, 自我概念이 가장 영향력이 크다. 최정훈⁹⁾에 의하면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개념과 자기능력에 대한 自己評價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의복행동과 관련된 연구에서 Ryan⁷⁾은 自信感 및 自負心の 높은 學生들은 자신이 의복을 잘 입었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였으며, Zentner⁸⁾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남학생에게서 自我承認이 낮은 학생이 자신의 目標達成의 수단으로 의복을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職業滿足度 : 장정호⁹⁾에 의하면 Tiffin은 직업만족을 직업에서 체현된 또는 직무로부터 유래하는 慾求滿足 정도의 機能이라고 하였고, Kalleberg¹⁰⁾은 직업만족 또는 자신의 職業役割에 관한 전반적인 느낌의 방향을 의미하며 전체적인 직업상태에 대한 종합적 개념으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Davis¹¹⁾에 의하면 Near는 生活滿足도의 한부분이며, 個人의 삶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직업만족도라 하였고, Armstrong(1971)과 Locke(1974)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Jackson¹²⁾은 직업만족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인 만족(general satisfaction)도 증가한다고 하였다.

衣服同調性 : 모든 사람은 사회에서 최소한 한가지 이상의 準據集團에 속하고, 각 準據集團은 구성원들에게 意味의 체계와 가능한 行動, 즉 規範을 가지며 이 規範이란, 행동, 감정, 思考등을 規定 하거나 禁止하는 범위이고, 이 規範의 知覺형태는 동조·비동조와 관계가 있다¹³⁾. 따라서 의복의 동조성이란 특정 집단의 規範에 맞추어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한다. 의복행동에 있어서 Laptisky¹⁴⁾에 따르면 의복의 동조성, 사회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不安感이 높고 자신이 能力있다고 생각하면 동조성은 감소된다는 것이다.

김영인(1981)¹⁵⁾이 여자 중고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知覺向性이 높을수록 의복동조성은 낮아졌으며 남자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정미실(1983)¹⁶⁾의 연구결과에서도 지각향성이 높은 남학생은 의복동조성

이 감소되었다.

衣服滿足度 : Ryan⁷⁾은 의복만족도 測定은 개인이 왜 特定衣服을 선택하고자 하는가 하는 소비자의 動機 측면에서 측정된다고 하였다.

Anspach¹⁷⁾은 의복만족도 類型을 3가지 type으로 分類하고 첫째는 멋있게 보이는 옷을 만족하는 type. 둘째, 안락감을 중요시하며 실용적인 옷에 만족하는 type. 셋째, 자기만이 나타낼 수 있는 독특한 type이다.

관련연구로서는 임춘봉(1974)¹⁸⁾, 이경손(1979)¹⁹⁾ 정미실(1982)¹⁶⁾의 연구가 있다. 임춘봉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肯定的인 總知覺을 가질수록 남녀 모두에게 衣服滿足도도 높았고, 은행원·일반사무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경손의 연구에서는 全般的인 自我概念이 높을수록 의복만족도가 높았으며, 정미실의 연구에서도 知覺向性이 높은 남자 중·고생일수록 자신의 의복에 만족하는 결과가 있었다.

衣服象徵性 : Conner와 Nagasawa²⁰⁾는 他人과의 相互作用時에 의복은 의미있는 象徴으로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Enty²¹⁾에 의하면 Veblen은 의복은 사회적 位置와 成功을 나타내는 으뜸가는 간판(prima facie)이라 하였다.

강혜원²²⁾은 의복의 상징성은 着用者의 신분, 직업, 종교, 집단의 歸屬등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김원옥(1984)²³⁾은 職場女性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직업에 만족하는 경향이 클수록 의복의 신분상징 경향이 높았다고 한다.

Horn(1975)²⁴⁾은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집단의 認定을 받고 所屬感을 느끼게 하는 의복이 있으며 職業人의 의복은 職業的 身分象徴의 役割이 매우 커서 육체노동자는 作業服(overall, coverall) 및 uniform에 의해 認知되고 정신노동자는 신사복(suit) 및 운동복(sports wear)으로 認知된다고 하였다. Lafferty와 Dickey²⁵⁾는 간호원을 대상으로 직업상징을 나타내는 cap着用도와 職業役割態度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서 자신의 직업에 好意的이고 肯定的인 태도를 보인 사람은 의복의 自律性を 拒否하고 자신이 간호원임을 상징하는 cap의 착용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V. 研究方法 및 節次

1. 測定道具

1) 知覺向性 檢査

Usher의 知覺向性 測定基準을 토대로 최정훈(1972)⁹⁾이 만든 標準化된 검사이다. 신뢰도 및 타당도가 인

정된 총 60문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직업에 대한 知覺 20문항을 제외한 자신에 대한 知覺 20문항과 타인에 대한 知覺 20문항등 40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점수는 5단계 評定法으로 계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肯定的인 知覺向性を 가진 것을 意味한다.

2) 職業滿足度 檢査

Miller의 The Attitude Toward Any Occupation Scale 총90문항중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20문항으로서 김원옥(1984)²⁶³의 연구에서 신뢰도가 인정된 문항이다. 자신의 職業에 대한 報酬, 社會認定度, 適性 등에 관한好意·非好意的 및 만족 불만족의 정도가 표현된 것으로 5단계 評定法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職業에 滿足하는 경향이 큰 것을 意味한다.

3) 衣服行動 檢査

衣服行動 測定은 의복의 동조성, 만족도, 신분상징성 및 직업상징성의 4측면을 포함하며, 각 측면에 8문항씩 총32문항으로 5점 Likert-type 으로 제시하고 각 문항 전체를 無作爲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측면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意味한다.

① 衣服同調性 : 의복의 동조성은 강혜원(1974)²⁶⁴이 사용한 측정도구에서 5문항, 정미실(1982)의 측정도구에서 3문항을 선택, 構成하였으며 문항내용은 집단의 분위기에 대한 동조 7문항, 상황에 따른 동조 1문항으로 되어있다.

② 衣服滿足度 : 고애란(1982)²⁷⁷이 사용한 측정도구에서 5문항, 정미실(1982)¹⁶⁹의 측정도구에서 3문항을 선택하였으며 문항내용은 의복의 용도 1문항, 의복의 가치수 5문항, 착용방법 1문항, 색 1문항으로 構成되어 있다.

③ 身分象徵性 : 이영운(1981)²⁸³의 측정도구에서 1문항, 고애란(1982)²⁷⁷이 사용한 측정도구에서 7문항을 선택하여 보완, 수정하였으며 문항내용은 가격수준 3문항, 품질 2문항, 유명상표 1문항, 사회계층을 나타내는 의복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④ 職業象徵性 : 의복의 직업상징성은 본연구를 위하여 専門家の 의견을 들어 작성되었으며 문항내용은 직업을 나타내는 정도 6문항, 의복구입시 직업의식의 정도 1문항, 의복착용시 직업의식의 정도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標集對象 및 資料蒐集

서울에 거주하는 white-collar 의 직장남성을 대상으로 표집기준은 이상백과 김채운(1966)²⁸⁹, 김원동(1982)

〈표 1〉 표집대상의 분포 (n=323)

구분	직종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명 수		52	82	189
%		16.1	25.4	58.5

³⁰⁰의 연구에 사용된 한국사회의 직업위세분류를 기초로 留意抽出(purposive sampling)하였다. 그 분포는 〈표 1〉과 같다. 자료수집은 豫備調査를 거친 설문지를 1984년 6월부터 7월사이에 配分하여 회수하였다. 그중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323부가 統計處理에 使用되었다.

3. 資料分析

各 變因의 빈도분포,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各 變因間의 상관관계는 Pearson 積率相關係數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一元變量分析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使用, 分析하였다.

4. 研究의 限界點

衣服行動 測定道具가 우리나라에서 실증적 타당성이 충분히 檢證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結果를 전체 직장남성에 대하여 확대, 해석하는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VI. 結果 및 論議

1. 變因의 점수분포 경향

知覺向性 : 가능한 점수범위는 40~200점이나 실제 나타난 점수는 73~187점 ($\bar{X}=148.83$, $SD=16.45$)이었다.

職業滿足度 : 가능한 점수범위는 20~100점이나 실제 나타난 점수는 26~88점 ($\bar{X}=65.99$, $SD=9.05$)이었다.

衣服行動 : 衣服變因 각각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8~40점인데, 衣服同調性的의 실제 나타난 점수는 11~31점 ($\bar{X}=22.71$, $SD=3.29$), 衣服滿足度的의 실제 나타난 점수는 17~38점 ($\bar{X}=27.42$, $SD=3.97$), 身分象徵性的의 실제 나타난 점수는 9~32점 ($\bar{X}=19.72$, $SD=4.14$), 職業象徵性的의 실제 나타난 점수는 8~32점 ($\bar{X}=20.03$, $SD=4.30$)이었다.

2. 衣服行動과 知覺向性 및 職業滿足度와의 관계

〈가설 1, 2〉의 검증을 위하여 Pearson 積率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의복행동과 지각향성 및 직업만족도와의 상관관계 (n=323)

독립변인	의복변인			
	동조성	만족도	신분상징성	직업상징성
지각향성	—	.17**	-.13*	-.09
직업만족도	.17***	.11*	—	.06

***p<.001 **p<.01 *p<.05

〈가설 1〉에 있어서 지각향성은 의복만족도와有意한 正의 상관관계를, 身分象徵性과는 有意한 負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므로 〈가설 1〉은 부분 否定되었다. 자신이나 타인을 肯定的으로 지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복에 대하여 滿足하고, 의복을 신분상징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結果는 이경손²⁰⁾, 정미실¹⁶⁾의 先行研究에서 나타난 肯定的 지각을 가질수록 의복만족이 높다는 結果와 일치하며 자신이나 타인을 價値있고, 有能하다고 생각지않는 자아승인이 낮은 학생이 目標達成의 手段으로 의복을 使用한다는 Zentner⁹⁾의 연구결과를 支持하고 있다.

지각향성은 의복의 同調性 및 職業象徵性과는 有意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서 집단의 의복規範에 동조하거나 의복으로서 직업을 나타내는 것은 지각향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각향성이 낮은 남녀 중고생이 의복同調성이 높다는 김영인¹⁶⁾, 정미실¹⁶⁾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조사대상의 집단적 특성으로 인하여 white-collar 層一般의 모든 신사복을 착용하기때문에 지각향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의복同調성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을 것이며, 職業象徵性에도 관계가 없었을 것이라고 해석된다.

〈가설 2〉에 있어서 職業滿足度는 의복同調性, 의복滿足도와 有意한 正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므로 〈가설 2〉

는 부분 否定되었다. 직업에 만족할수록 집단에 同調하는 의복을 착용하는 경향이 높고 자신의 의복에 대하여 滿足을 느낀다. 이는 white-collar의 構成員은 他人과의 동조적 성향을 뚜렷하게 나타낸다는 김영모⁵⁾의 주장을 支持하여주며, 자신의 職業役割에 만족할수록 職場의 소속감이나 사회적 승인을 얻으려하므로 집단내부 규범에 대한 同調的 傾向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의복만족도는 김원옥²³⁾의 職場女性을 대상으로 직업에 만족하는 경향이 클수록 의복만족도가 높았다는 結果와 일치한다.

職業滿足度는 의복의 身分象徵性 및 職業象徵性과는 有意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의복을 신분상징의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김원옥²³⁾의 연구결과 및 직업역할에 好意的인 態度를 보인 간호원은 그들의 職業象徵인 cap의 착용도가 높았다는 Lafferty와 Dickey²⁵⁾의 연구결과를 支持하지 않는다. 이는 white-collar는 신사복(suit) 및 운동복(sports wear)으로 認知된다는 Horn²⁴⁾의 주장을 미루어 신사복을 착용하는 조사대상의 white-collar 特性으로 인하여 職業滿足도와 의복의 職業象徵性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 것이라고 해석된다.

3. 職業分類에 따른 의복行動 差異

의복行動 태측면과 직업분류에 따른 세集團間의 差異를 밝히기 위하여 〈표 3〉과 같이 一元變量分析으로 분석하고 有意한 差異를 나타내는 것은 세집단 중 어떠한 두집단간의 실제적인 有意한 差異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使用하여 〈표 4-a, b〉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와 같이 의복동조성과 직업상징성에서 집단간에 有意한 차이가 있었다. 의복同調성에 있어서 관리직과 전문직의 평균비교에서 有意한 差異가 나타났으므로 〈표 4-a〉, 이는 전문직이 관리직보다 의복同調성이 높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러한 結果는 전문직의

〈표 3〉 직업분류에 따른 의복행동 차이(일원 분산분석 결과) (n=323)

의복행동	직업 분석		전문직 (n=52)		관리직 (n=82)		사무직 (n=189)		F-value
	직업	분석	̄X	S.D	̄X	S.D	̄X	S.D	
의복동조성			21.48	3.51	23.55	3.15	22.68	3.21	6.48**
의복만족도			28.60	3.64	27.34	3.99	27.13	4.00	2.83
신분상징성			20.02	4.35	19.85	4.01	19.59	4.16	.28
직업상징성			18.98	5.10	19.56	3.99	20.53	4.14	3.35*

**p<.01 *p<.05

〈표 4-a〉 의복동조성에서의 두집단간 차이(Duncan's multiple range test) (n=323)

직업	분석	평균의 차이	q(α, R, f) × S \bar{x}
전문직 · 관리직		2.07**	1.55 (R=3)
관리직 · 사무직		.87	1.11 (R=2)
사무직 · 전문직		1.19	1.31 (R=2)

RANGE=2 q(.01, 2, 320)=3.66

RANGE=3 q(.01, 3, 320)=3.82

**p<.01

〈표 4-b〉 직업상징성에서의 두집단간 차이(Duncan's multiple range test) (n=323)

직업	분석	평균의 차이	q(α, R, f) × S \bar{x}
전문직 · 관리직		.97	1.49 (R=2)
관리직 · 사무직		.58	1.11 (R=2)
사무직 · 전문직		1.55*	1.39 (R=3)

RANGE=2 q(.05, 2, 320)=2.79

RANGE=3 q(.05, 3, 320)=2.93

*p<.05

표집대상이 주로 수련의사로서 50%이상이 20~29세에 분포되어 있고, 관리직은 대기업의 과장급이나 4, 5급 공무원의 지위에 해당하는 직종이므로 30~39세에 50% 이상이 분포되어 있어서 社會生活을 처음 시작하거나 얼마되지 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準據集團에 맞추어 옷을 입으려는 경향을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職業象徵性에 있어서는 사무직이 전문직보다 직업을 상징하는 의복에 더 관심이 높음을 나타내었으며 〈표 4-b〉, 이는 이 상백등²⁹⁾에 따르면 사무직은 전문직에 비하여 제한된 자율성과 창의성을 갖는 직업군이므로, 社會的承認을 받을 수 있는 white-collar 입을 象徵하

는 것에 관심이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背景變因과 衣服行動, 知覺向性 및 職業滿足度와의 相互關係

본 연구의 배경변인은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월수입, 종사기간으로 의복행동 및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知覺向性は 교육수준, 경제수준, 월수입이 높을수록 肯定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으며, 경제수준, 월수입이 높을수록 종사기간이 오래될수록 職業滿足도가 높았다.

衣服同調性에 있어서 경제수준, 월수입, 종사기간이 높을수록 同調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정미실¹⁶⁾의 연구에서 경제수준이 높은 중고생일수록 의복의 개성을 중요시 하였다는 結果와 상반되는 것으로 조사대상의 差異에 起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衣服滿足度는 종사기간이 오래될수록 의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원옥²³⁾의 研究結果와 일치하며, 종사기간이 오래되면 職場內社會的地位가 높아지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의복만족도 높아지리라고 생각된다.

身分象徵性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 경제수준, 월수입이 높을수록 衣服의 身分象徵性을 중요하게 여겼다.

職業象徵性은 배경변인과 아무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조사대상의 集團特性으로 신사복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으므로 배경변인에 따라 특별히 영향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직업상징성 측정결사의 독립성에 대한 보장 및 재검토가 더 연구되어야 한다.

〈표 5〉 배경변인과 의복행동, 지각향성 및 직업만족도와의 상관관계(r) (n=323)

변인	배경변인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월수입	종사기간
지각향성		.01	.14**	.17***	.12*	.08
직업만족도		.05	.04	.29***	.22***	.20***
의복:						
동조성		.07	-.02	.11**	.10*	.15**
만족도		.05	.01	.02	.03	.12*
인분상징성		.09*	.11**	.16**	.10*	.05
직업상징성		-.02	-.04	.01	-.06	-

***p<.001 **p<.01 *p<.05

Ⅶ. 結論 및 提言

첫째, 知覺向性은 衣服行動과의 관계에 있어서 自身이나 他人을 肯定的으로 知覺하는 직장남성은 자신의 의복에 만족하고, 衣服身分象徵性은 중요시하지 않는다.

둘째, 職業滿足도와 衣服行動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업에 만족하는 직장남성은 의복동조성이 높고, 자신의 의복에 만족하였다.

세째,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의 職種간의 차이는 관리직이 전문직보다 衣服同調性を 중요시하였으며, 사무직이 전문직보다 의복으로 職業象徵을 나타내려는 경향이 높았다.

네째, 背景變因과 衣服行動, 知覺向性 및 職業滿足도와 의 관계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의복의 신분상징성을 중요시여기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知覺向性이 肯定的이며 신분상징성도 중요시 한다. 경제수준, 월수입이 높을수록 知覺向性이 肯定的이며 職業滿足도가 높았고 의복동조성 및 신분상징성이 높았다. 또한 종사기간이 오래 될수록 직업만족도, 의복동조성, 의복만족도가 높았다.

本 研究에서는 직장남성의 知覺向性 및 職業滿足도와 衣服行動과의 관계를 다루었는데 앞으로의 研究에서는 직장남성을 대상으로 다른측면의 衣服行動 變因이 첨가되어 더 研究되어야 한다.

身分象徵性 측정과 職業象徵性 측정의 확실한 구분을 위하여 측정결과 문항의 補強 및 再檢討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회사 uniform을 착용하는 직장의 경우 uniform을 착용하므로써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合理的인 衣服生活의 方向을 提示하는데 도움이될 수 있기를 期待한다.

참 고 문 헌

- 1) Flugel, J.C., *The Psychology of Clothes*, N.Y.: AMS PRESS Inc., 15,31, (1976)
- 2) Hurlock, E.B., *Development Psychology*(4th ed.), New Delhi: Tata McGraw-Hill Publishing Co. Ltd., 212, (1978)
- 3) Form, W.H. and Stone, G.P., *Urbanism, Anonymity and Status Symbolism*,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2, 504~510, (1957)
- 4) 김영모, 韓國社會學, 法文社, 102, (1977)

- 5) 고영복, 現代社會學, 法文社, 233,234, (1976)
- 6) 최정훈, 지가심리학, 을유문화사, 21~29, 70, (1972)
- 7) Ryan, M.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Y.: Holt Reinhart and Winston Inc., 10, 180, 300, (1966)
- 8) Zentner, M.A., *Perception of Clothing Usage, Clothing Attitude and Practices and Self-Acceptance*, *Home Economics Research Abstract*, 73, (1971)
- 9) 장정호, 조직구성원의 인간유형별 직무만족도의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 10) Kalleberg, A.L., *Work Values and Job Reward: A Theory of Job Satisf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 126, (1977)
- 11) Davis, K., *Human Behavior at Work Organization Behavior*, N.Y.: McGraw-Hill Book Co., 83~98, (1981)
- 12) Jackson, C.B., *Family Life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as Predictors of Perceived Well-Being*, Unpublished Ph.D.Disser. The Michigan State Univ. (1979)
- 13) Calhoun, D.W., *Person In Groups*, N.Y.: Harper and Row Publishers Inc., 83~86, (1976)
- 14) Laptisky, M., *Clothing Values and Their Relation to General Values and to Social Security and Insecur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 (1961)
- 15) 김영인,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16) 정미실, 남자 중·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지각향성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17) Anspach, K., *Clothing Selection and The Mobility Concept*, *Journal of Home Economics*, 53, 428~430, (1961)
- 18) 임춘봉, 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의상행위와의 상관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 19) 이경손, 성인남자의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 20) Conner, B.H. and Nagasawa, R.H., *Person and Costume: Effects on The Formation of First*

- Impress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 32~41, (1975)
- 21) Enty, J.E., Clothing Symbolism: A Study of Afro Fashions and Their Relation to Black Identity and Self-Concepts of Black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 The Penn. State Univ., (1979)
- 22)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교문사, 36, (1984)
- 23) 김원옥, 직업여성의 衣服行動과 職業滿足에 관한 分析的 研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24) Horn, M.J., *The Second Skin* (2nd Ed.), Boston: Houghton Mufflin Co., 207, (1975)
- 25) Lafferty, H.K. and Dickey, L.E., Clothing Symbolism and The Changing Role of Nurs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8, 294~301, (1980)
- 26) 강혜원, 대학생의 個性과 유행을 中心으로 한 의 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제11집, 연세대학교 대학원, 370~374, (1974)
- 27) 고애란, 成人男子의 衣服行動과 強化統制 및 身體的 滿足과의 相關研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28) 이영운, 中年期 女性들의 身體的 滿足도와 衣服行動과의 相關研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29) 이상백과 김재윤, 韓國社會階層研究, 서울: 민潮社, 29, 42~45, (1966)
- 30) 김원동, 地位不一致와 그 類型에 關한 一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